

---

**2022년 제1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 □ 심의개요

- 일 시 : 2022. 12. 23.(금) 14:00 ~ 17:3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2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건 : 8개소 15작품(조각 15 / 신규 8, 재심의 7)

## □ 심의결과

- 15작품 중 가결 12작품(원안가결 6 / 조건부 4 / 권고 3), 부결 3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계양구 작전동 286-2	조각	Silent Memorial			○	
2	2	중산동 1880-2	조각	숲의 노래-내리사랑		○		권고
3	3	청라동 94-1	조각	공존의 도시			○	
	4		조각	해오름 꽃		○		
	5		조각	풍요		○		
	6		조각	꿈을 보다		○		조건부
4	7	서구 가좌동 148-2	조각	내 속엔 나무		○		
5	8	중구 북성동1가 98-218 외	조각	Bio-Resilience-순환		○		권고
6	9	서구 백석동 170-3	조각	설레임-꿈꾸는 나무		○		
	10		조각	동심-달빛에 물들다		○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7	11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조각	운 연리지[雲 連理枝]			○	
	12		조각	Busking_ 시간을 달려서		○		조건부, 권고
	13		조각	솔		○		조건부
8	14	미추홀구 도화동 985-3외 1필지	조각	Cube Composition 22-002		○		조건부
	15		조각	합창 I		○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위원회”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이어서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8개소 15작품이며, 모두 조각작품입니다. 이 중 신규는 8작품, 재심의를 7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도 채점을 하지 않게 되며, 작품에 대해 창작자 정보는 경력과 작품 이력 외에는 비공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심의신청인과 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눠드린 사전심의서와 출품 및 심의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중 한분이 확인하시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니 추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작품설명을 위해 작품관계자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자에게 질의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오상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

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작품은 총 15건입니다.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위원 총 12명 중 12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12차 작품 회의에서는 15작품을 심의하게 됩니다. 순서는 신규 안전 먼저하고 재심 안전은 그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계양구 작전동 286-2번지

### 1) <Silent Memorial>

위원장      먼저 신규 작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Silent Memorial>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번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작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무슨 의견 없으신가요?

○○○      저는 의견이 없는데요.

○○○      오늘 조각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전부 다 조각 작품들이니까. 더

의견 없으시면 작품별로 책정해도 되시겠습니다. 채점 중에도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 여기, 뒤에 서류가 뭐가 많은데요. 여기 사전 심의하는 거 이것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아, 네, 네.

사회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심의를 취합본이라는 건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지금 저희가 받은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근 5년간 이미 출판 및 심의되어 본 각 작가별로 5년간에 있는 출판 내용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30작품을 심의했습니다, 평균. 오늘 이제 15작품이니까 30작품 할 때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소요가 안 되니까 좀 이제 자세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이 다 되신 위원님께서서는 우측에 채점표를 놓아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회수를 할 겁니다.

( 채점 중 )

## 2. 중산동 1880-2번지

### 2) <숲의 노래-내리사랑>

위원장 다음으로 2번 <숲의 노래-내리사랑>에 대해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 <숲의 노래-내리사랑>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말씀 없으신데요. 다른 때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웃음)

○○○ 네.

- 너무 추워서 오시느라 추워서 그러신지. (웃음) 오늘 거의 저기 입체 쪽, 위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작품도 다, 그렇죠?
- 네.
- 근데 말씀이 너무 없으셔서. (웃음) 미리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지.
- ○○○ 선생님?
-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작품 조각 정보입니다. 다른 거보다는 색을 배제한 것 같은데 일단 색깔이 너무 단조롭고 이 재료가 지금 보니까 화강석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화강석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그 지역에 따라 색깔도 좀 다르고 종류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기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색채가 너무 회색이라 단조로운 것 같아서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변화 있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 예, 저도 한 말씀 뛰나면 ○○○ 선생님 의견에 저도 동감이고요. 가족적이고 친화적인 분위기인데 색채가 조금 없는 게 포인트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사한 이 양식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독창성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 저기는 다른 석재를, 색깔이 좀 다른 석재를 섞어서 쓰면 어떨 것냐는 의견이신가요? 예를 들면 마천석을 섞는다든가, 황등석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거는 포천석인 것 같은데.
- 네, 아래 부분... 근데 그 화강석도 이런 식으로 호불호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포천석이라고 정확하게 명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 네.



- 만약에 포천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 좌대요?
- 예. 좌대 부분도 좀 색깔이 달라서 ‘좌대 부분하고 작품 부분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체 부분하고 그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씩의 색깔이 좀 다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예.
-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 같은 포천석이라도 물갈기를 하면 색깔이 좀 짙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명도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 저는 색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그 동작이, 그 형태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취하기 어려운 동작들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은 보고 있을 때 일단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요. ‘어, 저런 포즈로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웨입(Shape)에 대한 좀 부분이 좀 수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봤을 때 좀 편안해야 되는데 정 가운데에 있는 아이인지, 이렇게 그 동작 같은 것들이 사실 기대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한 형태들을 조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편안한 형태로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곁들여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저도 색채 부분은 약간의 변화만 줘도 물갈기나 아니면 뭐 터치를 주는 것만 해도 색감이 약간 변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단조로운 좌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으로 변화하고 그 인체가 변형이 된 게 너무 눈사람 같이 둥글둥글한 것이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보기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둘이 양쪽에 올라가 있는 것만 빼도

좀 안정감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 같이 동글동글하게 변형된 인체가 조금만 자연스러웠으면 안정감 있게 표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형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가 작품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작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심의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예.

○○○ 집계 결과 70점 이상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조건으로 제시할지, 말지를 의논하면 어떨까요?

위원들 예.

( 채점 중 )

### 3. 청라동 94-1번지

#### 3) <공존의 도시>

#### 4) <해오름 꽃>

위원장 다음 3번부터 6번까지 네 작품은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심의는 두 건씩 나눠서 3번, 4번을 먼저 보고 5번,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존의 도시>와 4번 <해오름 꽃>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3번부터 6번까지의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 선생님.

○○○ 3번 같은 경우는 저는 가격을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라가지고요. 작품 가격이 과다 산정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의 조화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조형이나 너무 건축물의 세련됨과는 거리가 먼 다소 산만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네, 저도 ○○○ 위원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3번에 있는 작품 봤을 때 이 가격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설치되는 위치에 나무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조각상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 나무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의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외장재하고 오인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건축물 관련해서도 외장재가 미술 작품의 형태처럼 타일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작품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외장재인지에 대해서 혼돈이 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선생님.

○○○ 3번 작품 같은 경우에 그 민들레 홀씨라는 게 너무 사실 많고요. 예, 상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 뭐가 많다고요?

○○○ 그 소재 자체가 일단 너무 많고요. 그나마...

○○○ 아, 데코레이션이? 네.

○○○ 예, 유사 형태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지금 4m 40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픽 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 같은 경우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 산정에 있어서 좀 과다 산정이 돼 있더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유지 방안에서도 안에 있는 저런 데 3m, 4m에 있는데 가운데 조경을 넣게 되면 나중에 저거 누가 볼트 풀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작가가 보통 보정 기간이 2년에서 3년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효과는, 그래픽 상의 효과는 좋아도 밑에 있는 \*\*돌이나 관리하기 쉬운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들이 고려가 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래픽 효과가 좀 잘 안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비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떤 형상인지도 잘 안 보여서요, 사실. 그래서 매스감이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조각품 구조라고 하기에 도 그렇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네, ○○○ 선생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줘.

○○○ 네, 지금 작품가도 과다 측정된 것 같고, 3번은. 그다음에 4번도 지금 ○○○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 특별한 언급 없으시면 채점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채점 중 )

### 3. 청라동 94-1번지

#### 5) <풍요>

#### 6) <꿈을 보다>

위원장        다음 작품 5번 <풍요>, 6번 <꿈을 보다>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5번 작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6번 <꿈을 보다>는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네, ○○○ 선생님. 하실 말씀 있어요?

○○○        아니요. 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        말씀들이 없으셔서. 6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꿈을 보다>, 네.

○○○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은 너무 기시감이 좀 있어서 사실은 너무 많이 본 거 같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앞에 그래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통로 뭐, 약자 분들한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밑에 그 장식으로 달아놓은 것들을 좀 없애고 집중하면 좀 어떻겠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네.

○○○        예. 신발 같은 게, 이렇게 튀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좀 발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 안전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서로 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올린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약간 조정 공간을 좀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 문제도 나중에 가결이 결정되면 조건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 5번 같은 경우, 이제 건물 투시도, 건물 이미지랑 같이 보면 되게 눈에 띄는데 건물은 굉장히 세련되게 하려고 색상이나 디자인을 무겁게 사용하고 되게 세련된 건물을 했는데 조형물은 갑자기 너무 귀여운 게 온 게 아닌가. 색상 자체도 너무 핑크색, 노란색 그런 튀는 색상을 사용해서 건물과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아래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돼서 개네가 조금 이렇게 몰려 있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이 조금 추가만 된다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채점 중 )

위원장 네, 선생님.

○○○ 이 <풍요> 작품에 여기 조명 위치는 그 투명이... 자료를 못 봤네요. 아크릴, 이게 뭐죠? 여기, 여기, 여기.

○○○ 풍요...

○○○ 풍요요?

○○○ 네.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건가 그게 재료가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 이거 지금 유리겠죠? 이거 지금 유리 부분이죠?

이제 그거 나와서. 이렇게 표현이 진짜 될 지가, 이 재료가.

○○○ 아크릴 재료가?

○○○ 예, 이 아크릴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고 예쁘게 표현이 되는지 그 재료에 대해서 누가 아시면

○○○ 이게 아크릴이 아니고...

○○○ 그냥 표면에 칠한거예요.

○○○ 아, 그냥 사람이 칠한 거예요?

○○○ 예.

○○○ 조명이 비치는 거 아니예요? 아닌가?

○○○ 이게 지금 설명을 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에 우레탄 도장으로

○○○ 그러면 스테인리스, 여기도요?

○○○ 네.

○○○ 아, 여기서는 나는 조명은 비추는 게 아니고

○○○ 조명은 어디서 나와요?

○○○ 조명은 전혀 없어요.

○○○ 그럼... 아

○○○ 조명이 옆에서 비춰주는.

○○○ 그냥 옆에서만 비추는. 아, 그런... 알겠습니다.

○○○ 추가 설명 없어도 되겠어요?

○○○ 네.

○○○ 네. 채점표 취합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사회자 예, 아직.

서 기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네.

#### 4. 서구 가좌동 148-2번지

##### 7) <내 속엔 나무>

위원장 다음 작품 7번 <내 속엔 나무>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7번 <내 속엔 나무>는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선생님.

○○○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저는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인천까지 올 때 조형물을 제가 한 8개 정도를 통과해야 여기를 오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조형물이 아파트 단지나 공공시설물에, 곳곳에 아주 요소에 이게 적당히 다 돼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작가적 예술성과 공공의 어떤 그런 심미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게 항상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과연 이 공간과의 어떤 호흡을 하느냐, 공공성에 부합하느냐 그런 문제와 아까 앞에 ○○○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나무를 심지, 이 공간에다가.’ 그런 작품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작품 같은 것도 어떤 작가적 스케일이나, 작가적 디테일은 아주 뛰어난 작품이기는 하나 이 작품이 이 공간과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내나, 그런 또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거든요. 저희 동네는 이제 어머니도 많이 사시고, 할머니도 많이 사시고 밤에 돌아다니는데 밤에 너무 깜깜깜 놀란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것보다 이렇게 못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성과 어떤 공간과의 조화, 작가적 역량이 너무 많이 보이는 작품들 아니면 공공성이 뛰어난 작품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이 앞 분의 작품도 작품성은 뛰어난 것 같으나 작품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공작품이라는 것은 이 낮에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밤에도 보지 않습니까? 밤에도 보고, 새벽에도 볼 수 있고요. 그



래가지고 좀 예술적으로 너무 뛰어나나 공공적으로는 조금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 화가 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작품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나 있는 작품들이 막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공공성에는, 작품성은 좋으나 공공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 네, 딜레마죠. 작품성과 공공성. 저도 항상 느끼는 문제입니다.

○○○ 함께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앞에서 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사실 주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준공업지역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준공업지역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물론 건물의 용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였다고 하면 지금 ○○○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래도 설치가 되는 공간 자체가 준공업지역이고 또 그곳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저기 내부의 단면도를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기는 한데 저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람이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좀 안전에 있어서 추후에 들어가 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저는 이 작품은 위에 있는 계속 봤던 작품보다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편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많이 보지 못했던 형상이고 그러면서도 원형 상태가 있어서 좀 눈에 부드럽게 보여지고 또 거기 앞에 또 그게 이렇게 어떤 나무 형상에서부터 이렇게 유추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상이 저는 좀 상상력도 자극하고 이렇게 느낌이 저는 좀 다른 것보다는 좋게 와 닿더라고요. 위에 있는 작품들은 조금 자주 보는 스타일들, 너무 쉽게 익히는 작품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이 추상성도 있으면서, 구상성도 있고 또 측면에서는 또 다른, 완전히 또 다른 형태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은 좀 작품성도 있고 자연스럽게 보여졌어요.

○○○ 네.

○○○ 저는 이 작품이 약간 운동성 같은 거를 느끼게 해서, 조각 작품이면 기존의 조각 작품은 그냥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간성과 운동성을 같이 보는 것 같아서 좋게 봤습니다.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개인적으로는 작품 그러니까 이런 그 형태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변화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흰색하고, 회색하고 계속 반복이 있고 또 형태도 계속 반복되고 이런 데서 약간 좀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회색에서 뭐 전체적으로 끝까지 변한다든가 이런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작품가에 비하면 이 스테인리스 스틸, 한 재료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과다 산정이 된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재나 이런 데서 약간씩 좀 퀄리티를 조금 더 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 작품에서 마천석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게 마천석이에요?

○○○ 네?

○○○ 마천석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게 마천석이에요? 설명판을 마천석이

라고 그런 건가?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설명판? 작품 설명판을 마천석으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위에는 스테인리스 판이겠죠? 텍스트가 있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판. 그 바탕은 마천석.

( 채 점 중 )

## 5. 중구 북성동1가 98-218 번지 외

### 8) <Bio-Resilience-순환>

위원장 다음 작품, 8번 <Bio-Resilience-순환>에 대해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8번 작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좀 좋게 봤는데요. 이 조형물 중에서 이렇게 좀 조형물이 갖춘 게 좀 드문데 신선하게 봤습니다. 근데 하단부에 그 안전성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 필요하시면 저기 관련자들 와 계신데 그냥 불러서 설명 들으셔도 됩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식은 사실 안전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스 플레이트랑 이런 것들을 그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다짐하고 하면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설치 위치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작품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다 굉장히 좋거든요. 작업하고 개인적인 그런 작업 등 균형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또 비상 공간 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도면에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좀 부지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고친다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저희가 지금 가서 지금 확인하기 힘들어가지고 만약 된다면 조건부로 안전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저 앵커를 설치하면 충분히 튼튼할 것 같은데요, 윗부분이 가벼우니까. 근데 ○○○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치 문제는 ○○○ 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요?

○○○ 심의도서 7페이지를 보면 이게 더 잘 읽히는데요. 이게 또 건물 자체가 지금 월미도 뽀로로 파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유모차나 어린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공간인데 바로 홀에 한 가운데에 이 작품이 위치해 있어서 사실 좀 무리가 가는 위치인 것 같기는 합니다.

○○○ 더 좋은 위치가 있을까요? 여기 전체 그 공간이 별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녹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 바닥이 9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900에서 많이 해봐야 1,2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개 합쳐서요. 그리고 대신 이제 높이가 높아서 위쪽에서 넓기 때문에 바깥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바깥 쪽으로 옮기는 것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좀 작품을 옮겼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조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명이 매립형, 위쪽에서 떠 있는 것이기는 합시다만 누전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보완이 좀 된다면 밖으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위치만 확보가 된다면요.

○○○ 투시서 상으로 봤을 때는 옮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 저도 봐서 옮기기는 조금 애매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 저희가 도서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된다면 ‘확인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말씀은 위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나요?

○○○ 예, 아까 작가분이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네.

○○○ ○○○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계산서가 필수로 첨부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조 계산서는 심의 참석하기 전에 저도 검토를 해보고 왔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하단부에 들어가는 형태가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단부에 비해서는 높이 쪽에, 상부 쪽에 큰 구조물이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구조계산서 상에 있는 숫자도 저도 다 계산을 다 해봤는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저 아래쪽에 내부에 다시 기초 형태 만들고 플레이트 연결되고 해서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만한 그 정도의 규모가 된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 네.

○○○ 근데 아이들이 매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는.

○○○ 매달리기는 힘들 거예요.

○○○ 그래요? 이렇게 막 높이는 사람 키보다 높은 거 아닌가.

○○○ 예.

○○○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좋기는 한데 그런 심플함이 없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또 돌 좌대 같은 걸 여기에 올리면

접근을 조금 더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 어쨌든 유모차나 어린이들이 가서 많이 부딪혀서 작품에 훼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 좌대가 올리면...

○○○ 옆에도 설치 공간이 좀 보이거든요. 도면, 평면도에 건물 평면도에 보면. 그런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 진짜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좀 위험하게 보이네요.

○○○ 그 공간에 보면 산책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그 래도 옮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 조금 안 건드리는 쪽으로 가고, \*\* 만드는 걸 고려하는 걸로.

○○○ 4페이지 조경을 이렇게 보면 위치 조정이 안 되죠.

○○○ 그럼 이 평면도를 보아서 그 변경 위치를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추측 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하는 게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때.

○○○ 이거는 확인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이 도면으로는 잘 읽히지가 않아서. 어디라고 위치를 찍어주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원래 이 작가분이 이제 평면도를 제출했을 때요. 내 이 작품이 실내 있어도 괜찮고, 실외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까요? ‘이 작품은 실내, 실외에 다 가능하다.’ 근데 이 맨 처음에 서류 낸 거는 지금 실내에 있는 작품이잖아요.

사회자 아, 저기 관계자분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 꽃, 여기 크기가 2m나 되는데, 꽤 큰 건데 폭이.

○○○ 배수 설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실내도 가능하다는

○○○ 아, 예. 그러면, 그러면 뭐.

○○○ 예.

서 기 관계자 오셨는데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위원장 네.

서 기 8번 작품 관계자분이세요.

사회자 이쪽으로 오세요.

위원장 지금 작품 위치 때문에 논의가 있었거든요.

관계자 네, 네.

위원장 예, 그래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길 수 있느냐?

관계자 저희가 건축주하고 작품 위치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협의를 봐왔습니  
다. 그런데 워낙 이제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이 적고 그다음에 주출입  
구 주변에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통로에 대한 부분 ‘중앙 통로에 대  
한 부분의 어떤 동선을 막지 않는 선에서 작품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  
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주출입구 주변에  
공개공지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위치가, 그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제안하고 있는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관계자 네, 네, 맞습니다.

○○○ 그렇다면 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아이들이 잡고, 공에 매달리거나  
뛰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좌대를 해서 올리면 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계자 지금 저한테 질문하셨으면, 저희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테마파크다 보  
니까 ‘가족 단위, 또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상으로 작품에 있어서 좀 각이 질만한 모서리가 진 거, 그다음에 또  
애들이 올라타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  
다,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높이라든가, 부딪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애들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특히 또 그런 어떤 동  
선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 요소들을 상당 부분 많이 논의를 해서 작품

제안에 작품을 작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토의를 거친...

관계자 네, 네, 그렇습니다.

○○○ 거라 이거죠? 네.

관계자 6m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한 2m, 2m 이렇게 작품 사이  
즈가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부의 사이즈는 실제로는 1m 정  
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높이 때문에 동선이라  
든가 사람들의 이런 이동에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관계자 네.

○○○ 저기 그 작품 설치되는 게 건물의 주출입구인가요?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주 동선의 주출입구 입니다. 이 동선의 옆에는 사실  
상부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  
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작품을 감상도 많이 하고, 그 1층으로 들어  
가는 주 통로에 감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상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서 느끼는 어떤 상부의 어떤 그런 작  
품에 요소도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다른 1층으로 바로 들어간 출입문이 이쪽에 있나  
요?

관계자 네, 있습니다. 근데 주 동선이라든지 전체 이동 동선을 볼 때 이 건축  
의 주 동선을 볼 때는 이 공간이 가장 최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  
니다.

○○○ 저 건물에 예를 들어서 피난 동선하고 이 작품하고 설치 위치 겹치지  
않습니까?



관계자 아, 그거 하고는 저희가 설계 쪽하고 협의했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의견을 주었고요.

〇〇〇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되면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도착을 했을 때 지나가야 되는 통로에 있는 게...

관계자 아,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차량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〇〇〇 그럼 차량 부분은 어디로 빠지는 건가요?

관계자 차량 동선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여기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 동선입니다. 차량은 주차장이 이 뒤에 있습니다.

〇〇〇 응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 출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도착을 할 수도 있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관계자 이 건축 자체...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자체 이거는 사람의 주 동선이지 차량이 들어가거나 무슨 이런 동선이 아닙니다.

〇〇〇 이 피난 동선하고 방화벽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위치라는 거죠?

관계자 네, 네, 그렇습니다.

〇〇〇 예, 알겠습니다.

관계자 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채점 중 )

위원장 이 작품에 대한 평가 이후에는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표를 다 작성하신 위원님께서서는 제출하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작

품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저기 거론하고 싶은 위원께서는 이 작품이 가  
부가 결정된 이후에 조건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조건을. 그때 가  
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 10분 휴식 )

## 6. 서구 백석동 170-3

9) <설레임-꿈꾸는 나무>

10) <동심-달빛에 물들다>

위원장 9번과 10번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설레임-꿈꾸는 나무>  
와 10번 <동심-달빛에 물들다>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9번과 10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채점 중 )

위원장 다음 11번, 12번, 13번 작품은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심의는  
1건과 2건으로 나눠서 11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12, 13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7.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11) <운 연리지[雲 連理枝]>

위원장 11번 <운 연리지[雲 連理枝]>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자 11번부터 13번까지는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견 없으신가요?

○○○ 이 작품 가격이 좀 높으면 사실 작품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형적 형태라든지 조형물과 이렇게 썩 와 닿는 그런게는 보이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좀 지나치게 정석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작가의 독창적인 어떤 그 작가만이 갖고 있는 작품성, 독창성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 네.

○○○ 1심에서 이제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개가 ‘독창성이 부족하고 가격이 과다하다.’ 이게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태의 변화를 주는 것 같은데 독창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다가온 느낌은 좀 없습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말씀하신 대로 RGB조명 다 아실 텐데요. RGB조명이 아파트 단지에 사용되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1층, 2층, 3층은 이 공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소음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형태 자체가 매스(Mass)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조형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좀 수정사항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제 생각도 조명을 너무 과다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산만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형태를 깨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작가적 그런 메시지가 크면 공공성이 부적합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작품을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심의서를 작성했을 때 맨 처음 느낀 작품에 대한 어떤 반응이 ‘○○○가 중국에 가서 작품을 만들어 왔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체성도 없고, 말 그대로 이게 공공미술인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작품을 공유하고 그런 어떤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이 저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떤 그런 이 공감대, 공감대가 얼마나...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작품들에 비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문제, 그걸 좀 말하고 싶은. 조명도 네,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명 문제도 있고요.

○○○ 네, 알겠습니다.

○○○ 저희 단지에도 밤에 LED가 들어오는 조형 작품이 있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주민들이 해가지고요, 밤에는 조명을 켜어요. (웃음)

○○○ 아, 예, 예.

○○○ 그러니까 이제 작가하고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가 합의가 안 됐겠죠? 근데 한 3개월 정도 밤에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또 한 가지로만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변형이 자동이고.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만에 결국 그냥 조형물은 뭐 그대로 있고요. 조명만 아우스키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문제는 이 공공미술에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음, 예.

( 채점 중 )

7.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12) <Busking\_시간을 달려서>

13) <술>

위원장      예, 다음 12번 <Busking\_시간을 달려서>와 13번 <술>에 대해서 사회자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2번과 13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번 작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 볼 때 형태라든가 그런 것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기 안전 쪽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작품이 과연 서 있을 수 있는 작품인가. 파란색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에 원 힌지 형태로 해가지고 그쪽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조각 1층에 있는 조각 2개에다가 점점 만들어서 용접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위에 이쪽에 있는 그림에서 좌측 아래에 있는 저 한 점을 가지고 파란색 구조물 전체를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기타리스트의 형태하고 다른 곳에서 용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큰 구조물을 다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보완이 조금 많이 필요한 작품이라고 보입니다.

○○○ 그러니까 이제 말풍선 모양의 형태를 악사가 지금 받치고 있다는 말씀  
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풍선 보면 저기에 3명의 조각 형태가 빠지면 저 말풍선 형태가 서 있을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 2개의 인체 형상화시키신 거에다가 기대어 놓는다는 개념인데 오히려 다른 작품에 연결되면서 작품성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표현성을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보기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 한쪽만 그 지점을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풍선 형태를 조금 다른 형태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구조 계산서가 첨부이 돼 있나요?

○○○ 이거는 크기가 크지 않아서 구조계산서가 첨부이 안 돼 있는 형태고요.

○○○ 네.

○○○ 그리고 거기 말풍선 형태의 우측에 인체 형상에다가 기대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 잘 올라탈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계산서가 있든, 없든 이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보통 저희 작가들이 이런 작품들을 많이 대할 때는 사실 ‘저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오히려 말풍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래서 차라리 저런 걸 좀 빼고 그런 사람들을, 크기를 지금 1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색깔 자체가 180이면 어두워서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타 끝에 매달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그러니까 지금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매달릴 수 있다든가, 아니면 차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 기타를 떼어서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 (웃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크기 3명 사람으로 그냥 크기를 키우면 어떨겠나,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이 작품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형적인 변화라든가, 크기 변화라든가,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이 분 하신 다른 작품들 보니까 이런 작품 버스킹이나 인체 작업들 큰 규모 사이즈도 보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제시를 해 보는 건 어떨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선불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 이거 작품 내신 작가분이 아마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 심의 14번 작품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작품이 다 구조적으로 다 불안정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셨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생각들을 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관계자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저기 저 기타리스트 키가 지금 얼마죠?

○○○ 180입니다.

○○○ 180? 네.

사회자 아, 관계자분이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 먼저 말씀드리는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서를 검토해본 결과 미리 제작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작하는 사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걸 다른 데 설치를 했거나. 그래서 설치, 1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설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12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풍선 하고, 시계 바늘 이런 것도 좀 조형적으로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 예, 작품을 제작한 걸 콘셉트를 건드리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 시계 바늘과 말풍선이 저 버스킹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그렇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인체를 좀 키워서 어떤 그런 조형미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저도 마찬가지로 입장인데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쉽게 보일 수 있는데 ‘과연 저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공공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성이라는 게 단지 예술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조화시키기 힘들지만. 공공성은 그래서 이제 작가의 예술성과 사회 적 요구하고 합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 작품 자체로는 사실 저는 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그 시계 바늘만 좀 빼면 말풍선의 의미도 또 새로운 또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것만 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시계 바늘이 들어가서 작품이 시끄러워졌다는 말씀인가요?

○○○ 예. 의미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 네.

○○○ 차라리 말풍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작가가 그걸 바닥에 깔고 뭔가 조형 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그래야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세워도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 그러니까 ○○○ 위원님 말씀은 잔디 위에 놓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 다른 좌대를 놓든가 해서 경계를, 심리적 경계를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를 들어서 말풍선이 꼭 필요하다라면 작가가 그게 이제 어떤 주요한 모티브가 된다면 그걸 바닥에 조형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네.

○○○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이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죠. 13번 <술> 작품도.
- 여기 많은 분들이 써주셨지만 그 술잎 부분이 지나치게 날카로워 보이고 해서 굽힘도 있을 것 같고 손 끼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위치를 좀 더 조정을 해서 손에 안 닿는 곳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변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사실 심의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건 분명한데요. 저도 이제 같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작가 분들한테 죄송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일단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무조건 다칩니다, 저거는.
- 예?
- 안전성 문제가 일단 있고요. 뭐 조형적으로는 그렇다 뭐, 작가분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고려가 좀 심각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 채점 중 )

## 8. 미추홀구 도화동 985-3번지 외 1필지

14) <Cube Composition 22-002>

15) <합창 I>

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14번, 15번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14번 <Cube Composition 22-002>와 5번 <합창 I>에 대해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14번과 15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4번 작품, 구조 안정성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작품 관련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 만들었는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형태에서 기존에 했던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안전 파트에서 보고 있는데 전혀 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올려놓겠다라고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작품성을 떠나서 준비가 좀 덜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 구조 도면이 지금 첨부이 안 돼 있나요?
- 심의도서에 보면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22페이지요.
- 네. 조명까지.
- 음
- 20페이지.
- 저 파란색 부분하고 아래쪽에 기초 부분하고 연결된 연결부가 중요한데 그 연결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저 현재의 상태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형태적으로만 봤을 때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네, 태풍 같은 거 온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앵커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나 다른 작품처럼 콘크리트 앵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 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작품 크기가 높이가 5m가 넘지 않기 때문에 구조 계산서가 필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라면 당연히 첨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거 청구해서 다시 심의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이 작품도 가결이 된다면 구조 검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조형물로 봤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만 이렇게 붙어 있어도 사실은 안정적이라고 저희는 작품 제작을 할 때가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저도 이렇게 불안하게 매달리고 막 이렇게 천장에 매달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3점만 딱 정확하게 용접이 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결이 된다면 구조 계산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건축이라든가, 저도 원래 전공이 건축 전공하다가 지금 안전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축 구조물 볼 때도 3점, 지점이 3점이면 당연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죠. 저희가 삼각형 형태가 되어 있으면 가장 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3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1점이에요.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점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넓게 펼쳐진 세 점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거는 모여 있기 때문에 저 통으로 아예 1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저런 비슷한 삼각형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작품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당연히 구조 검토 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뒷 장면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게 본 것 같아요. 나름에 좀 벽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굳이 구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구조 계산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 15번 작품에 대해서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15번 같은 경우, 작품들이 다 너무 장식적이고 요란하고 막 이런 데 이걸 좀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올드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예전 생각이 나는 그런 석조여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

작품 사전심의서를 보니까 여기 자연환경을 많이… 아니, 저기 그 작가가 평생 기록해온 작업 세계를 볼 수도 있습… 이거 제가 쓴 건 아니데, 이런 얘기가 쓰여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좀 봤는데 저게 저 업계에서는 좀 알만하신 분 작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짐작하건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렇더라면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둘 작업을 계속하시는 분 같아서, 거대한 작업을.

○○○

이 작품에 관해서는 아니고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사전 검토서를 이렇게 막 항상 보면 그 작가 경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력을, 작가 경력을 저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그냥 ‘첫 느낌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작품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애매할 때는 경력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경력을 열심히 보다보면 조금 ‘이거는 좀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개인전, 단체전 이렇게 이제 나뉘지는데 사실 개인전…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면 더 세분화하게 엄밀히 따지자면 갤러리 다르고, 미술관 다르고, 갤러리도 갤러리마다 또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서 보면 너무 이게 혼잡하게 아트페어… 뭐 예를 들어보면 아트페어를 개인전으로 이제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그리고 심사위원의 경력이 왜 경력에, 이 경력에는 불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경력까지도 다 넣으시고 이게 굉장히 막 혼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받으실 때 그 작가 경력서에 조금 이제 조건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그러니까 경력이 좀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과장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이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많이 좀... 그러니까 개인전에 어떤 아트페어라든지 사실 부스전 이런 거는 개인전으로 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넣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대학에 이력서를 낼 때는 그것도 부스 개인적이냐 아니면 일반 상업 갤러리냐 아니면 관급 미술관이냐에서 점수로 차이를 주거든요. 근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작가의 경우는 평생 이제 둘 작업을 했고, 개인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 지금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이제 굉장히 제대로 된 경력이라서. 네, 그거는 이제 이 작가님 경우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경우에 그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맞습니다.

사회자 지금 채점을 지금 저희가 총 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지나야 이제 채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사회자 잠깐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5분간 휴식으로 하겠습니다.

( 집계 중 )

##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집계 발표하겠습니다. 가결 안건 번호는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전부 12건입니다. 부결은 1번, 3번, 11번 총 3건입니다. 가결 작품 중에서도 심의위원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발표하겠습니다. 8번 작품 <Bio-Resilience-순환>은 지상에서 두 번째 위치하는 구가 ‘아이들이 잡고 매달릴 위험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번 작품 <Busking\_시간을 달려서>는 ‘시계 바늘을 없애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번 작품 <Cube Composition 22-002>은 ‘구조 검토 첨부 발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결 작품 중에서도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가결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작품의 <해오름 꽃> 어떤 또... 그럼 그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이제 살펴보시고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조건이나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작품에서도 밑에가 지금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아이들이 올라타거나, 흔들거나 할 위험이 있으니까 밑에 저기 데코레이션을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까 있었습니다, 사람 밑에 있는.

○○○        저기 좀 전에 6번 작품에서 그 아래쪽에 표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안전구역 표기거든요. 그 아래쪽에 페인팅 해놓은 거, 표기가. 그래서 도면 표기하실 때, 도면 표기라든가 아니면 실제 저기 조형물이 저 안전구역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

요. 그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는 걸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안전구역이라면 조형물을 설치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예, 실제로 저 위치가 안전구역이다라고 하면 조형물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그냥 그림에만 저렇게 표현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저희 지금 안전구역인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저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네,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 그어 놨잖아요. 저희가 도로에서도 안전구역에 사람 못 들어가는 것처럼 저기 위치에다가는 조형물 같은 거 설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작가가 그냥 그림 그리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저 구역이 안전 구역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 구역이라고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야겠죠. 네, 설치 위치가.

○○○ 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 아, 저희가 운전하고 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짝 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전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도 그곳에 진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위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도 사실 저 위치를 보면 보도인지 차가 옆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불명확하게 표현돼 있어서 제가 확답은 못드리는데 저기 페인팅으로 이렇게 줄 쳐놓은 거 보면 저 구역을 안전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쳐놨다고 가정이 돼 버리면 저곳에는 조각상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분이 이 그림을 내어 주실 때 저기에 그림을 잘못 그리신 건지 아니면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바깥에 관계자분이 와 계신가요, 혹시? 왔어요?

- 안전구역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확실하게 도표가 나와 있으니까 저기 설치가 만약에 안전구역이 그게 있다면 설치가 안 되는 거니까, 또.
-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요?
-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조건부로 어차피 심사위원 분들한테 다시 다 자료가 다시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로 그냥 그거 확인만 걸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6번에 조건을 거는 걸로.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 서 기 이렇게 조건부로 달면 될까요?
- 위원장 네, 네, 좋습니다. 네, 안전지역인지 확인 요함. 관련 자료 제출할 것.
- 근데 그 건에서 아까 저기 심의하실 때 바닥에 조정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 그게 조정 공간이라고요?
-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바닥에 울퉁불퉁 튀어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조정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 그러니까 통행로라면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 밑에 있는 걸 뽑든, 몇 개를 뽑든 다리가 튀어나와 있으니 옆에 어떤 구역을 짓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 튀어나온 부분이 결국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펜스나 아니면 안전을 요하는 쪽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네, 네. 그것도 같이 조건에다가 걸어서 어떻게 할 건지



○○○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알록달록한 장식물 같은 구조물이 안전을 위해서 마치 펜스의 기능을 겸하라고 해놓은 걸까요?

○○○ 그것보다는 치우는 게.

○○○ 이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웃음) 그리고 안전 펜스를 하면은 너무 작품의 어떤 깔끔함이나 이런 걸 없애서 너무 안 어울리죠. 저 공간에 있는 작품들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펜스를 하면 너무 촌스러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 그래서 좌대를 좀 만든다던가, 작품 좌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도로하고 경계의 지점을 나름 줘야 되지 않을까

○○○ 네, 네.

○○○ 그런 바닥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건부를 다시는 게.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밑에 있는 것들이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

○○○ 좌대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 좌대 및

○○○ 좌대...

○○○ 안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 예, 예를 들면 좌대라든가.

서 기 네, 그렇게 적을까요?

○○○ 예로.

○○○ 예, 예를 들면. 예. 좌대, 네.

서 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 네, 네.

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다음 건 또 조건을 달아야 될 것...

서 기 좌대 맞?

○○○ 예.

서 기 등도 넣을까요?

위원장 네.

○○○ 좌대 등 넣어야죠.

서 기 아, 좌대 등 예.

○○○ 아, 그리고 저기 4번도요.

위원장 4번이요?

○○○ 4번 <해오름 꽃>도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게 저희가 논의하면서 놓친 게 있는데 여기가 오피스텔이잖아요. 상가 오피스텔.

○○○ 예.

○○○ 그러면 그거 강판 같은 거 안 들어가나요?

○○○ 들어가죠.

○○○ 그 밑에 들어간 걸로...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예.

서 기 혹시 4번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 네, 네.

서 기 4번 넘어가도 됩니까?

○○○ 2번에 대해서 지금 나왔던

서 기 2번이요?

○○○ 예.

위원장 2번이요? 아

○○○ 그 얘기들은 어떻게

○○○ 아, 저기 너무 좀 윗부분에 그 조그만, 조그만 매스들이 요란하다라는

의견이셨죠?

○○○ 색깔이 너무 진하다.

○○○ 그리고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러면 이걸 조건으로 다녀요? 아니면 권고로 할까요?

○○○ 권고로 해서요, 권고로, 권고 했으니까 권고성이 강한 것 같은데요?

○○○ 권고로?

○○○ 예, 예.

○○○ 네.

○○○ 괜찮아요? 네. 뭐라고 그럴까요? 그 화강석의 단순한 색채를 지양하고, 지양하여 색채 변화를 줄 것, 변화를 줄 것. 색채는 없어도 되겠네요. 변화를 줄 것.

서 기 단순한?

○○○ 지향하고 변화를 줄 것.

서 기 변화를 줄 것, 이걸 가요?

○○○ 네, 완전히 회색빛 한 통이니까

○○○ 뭐 물갈기나 잔다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넣어도 될까요?

○○○ 그거는 보고서 이따 알아서

○○○ 알아서?

○○○ 네.

○○○ 괄호 치고 잔다듬, 물갈기.

서 기 이렇게요?

○○○ 네, 그러면 저기 명도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니까. 또는 이중의 화강석을 섞거나.

서 기 이중이요?

위원장 네, 이중.

서 기           또는 이중의 화강석을 섞어서 제작이요?

위원장       네. 더 좋은 문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서기 2       7번...

위원장       7번이요? 네.

서 기       7번입니까? 네.

위원장       7번이 <내 속엔 나무> 인가요? 이게 아까 무슨 의견이 있었더라? 저기  
○○○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

○○○       아무 의견 없어요, 네.

위원장       네, 특별한 건 없었죠? 그다음은

서기2       그 다음 8번은 있습니다.

위원장       아, 8번 <Bio-Resilience-순환>.

○○○       여기에서 지금 아까 7번 작품 중에서

위원장       네.

○○○       ‘작품가가 과다하다.’ 는. ‘채색이 좀 추가돼야 된다.’ ‘설명판에  
마천석이 있는데 작품에는 마천석이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한번 하  
셨었습니다.

○○○       아, 그 앞에 작품 명제판과 설명판 그 바디는 마천석이고, 그 얘기네  
요. 작품이 아니라.

○○○       예, 예.

○○○       네.

○○○       7번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       이거는 넘어가셔도... 예.

서 기       예, 넘어가겠습니다.

- 네. 이거 구의 안전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죠?
- 저 그 도판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부대끼거든요, 그거랑. 에스컬레이터랑. 아까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데 옮길 수 없다라고 관계자 분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도판에서 보면 사실 되게 좀 부대끼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옮기는 게, 작품을 더 살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냥 권고로 하고 작품 이동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하는 쪽으로.
- 예.
- 그리고 또 저도 조금 이제 저기가 사람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통로에 대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 기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위치 이동 권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 예.
- 예, 그렇게 하면 될까요?
- 위원들 네.
- 네. 그리고 12번 작품 <Busking\_시간을 달려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시계 바늘을 없애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해서 저것이 과연 ‘저 인물이 저기 말풍선 구조를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오히려 세 사람의 작품을 개수를 줄여서, 사람 수를 줄여서 좀 더 큰 인물로 만들면 어떨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까요?

- 그러면 작품을 거기다가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계를 저거 배제를 하는 게 좋죠.
- 시계 빼고 저기 사람 크기만 좀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금액 대비 또... 예.
- 그러면 지금 저기 저 기타리스트가 180cm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몇 cm 정도로 확대되면 좋을까요? 한 2m? 한 2m 정도면 적절할까요?
- \*\*이 넘었으니까.
- 저게 이 그러니까 2m... 그러니까 20cm가 더 커져도 이것이 부피는 훨씬 많이 커지죠, 3승이 되기 때문에.
-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 그건 굉장히 디자인에 대한 건데, 작가가 고민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디테일까지 이렇게 설명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글썄, 그게 그 작가의 의도를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묵살하는 격이 되면 안 되겠죠.
- 그래서,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워서.
- 이것도 심의라는 명목을 가진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 네, 그래서 저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해서 가결이나, 부결이나가 결정이 돼야지. ‘그 디자인을 다 이렇게 빼라, 저렇게 빼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작가의 의도를 저희가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작가가 고심해서 낸 의견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달아서라도 통과하게 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

네.

○○○

작품 자체는 이제 완전히 부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독창성 훼손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권고사항이니까 시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면서 전체 디자인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 하신대로 안전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게 요구가 좀 모호할지 모르나 좀 더 추상적으로 ‘구조의 안전성을 기할 것.’ 이 정도로 해도 될까요?

사회자

다만 이제 권고사항은 작가가 이제 그거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부로 했을 경우는 조건을 이행해서 저희 심의위원회 이제 서면심의를 또 하기 때문에 그 수정을 해서 도서 이런 다 수정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하고 권고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상당히 큼니다.

○○○

권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자

권고는 이행을 안 해도 저희가 제재할 수...

○○○

조건부로 가는 게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자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작가의 독창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

그런데 다른 부분도 조건을 저희가 지금 조건부로 한 작품의 내용 자체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독창성도 있지만 위원회 심의하면서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더 좋고, 안전하고 이런 건 다 구조가 바뀌고, 일부 더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거는 조건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가요? 그러니까 안전성은 되게 심각한 부분이고

○○○ 근데 그게 ‘작품을 키워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자체가 작가의 독창성을 다 훼손을 하는, 일부를 훼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사회자 지금 나오신 의견들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작품이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건부로 넣으실 건가, 그런 걸 좀 의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이 조각가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누누이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는 게 “야, 이게 튼튼하냐? 무너지지 않냐?” 네. 입학시험 볼 때도 조소 실기에서 그것이 흠이 조금 떨어지면 이걸 완전 빵 점이거든요. 조각의 아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 안전이라는 것은 아마 작가 스스로가 더 많이 의식하고 신경을 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조건부는 저기 안전성 있게 하시고, 권고사항에서 시계 시침하고 분침을 배제라고 기재를 하면 그냥 공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예, 저는 그렇게.

○○○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작가의 작품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도하고 작품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공공미술 들어가는 거, 저도 사실은 공공미술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할 때 보면 되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기타 등등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 작품을 그대로 갖다 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기 작품을 진짜 안 시켰거나 이런 몇몇 빼놓고는 개념만 가져가지, 거의 그런 어떤 조형적인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대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 작품 갖다가 거는 것도 아니고 사실 10년, 20년 놓을 건데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 같고요. 그게 작가의 작품성은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통과가 됐다보니까, 하여튼 뭐 저는 좀 나눠서 그렇게 일단은 부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조건은 안전성 부분하고 조금 조형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권고사항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문제가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지난번 심의 때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굳이 살려서 붙였잖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개선사항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면 추가하시면 돼요.

○○○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없어지니까 그 비용이 빠지고 다른 데도 또 이게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크기를 좀 키워서 다른 아마 심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크기를 조금 더 키우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너무 그것도 2배, 3배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키움으로써 좀 작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 다른 데 심의가도 크기나 지나치게 간섭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동의합니다.

○○○ 내용 정리를 권고사항은 이렇게 넣고 아까 크기를 180을 2m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괄호 넣고 ‘약 13% 이상.’ 이렇게 될까요?

○○○ 예, 그거를 작가가 받아들이면 좋고요.

○○○ 그럼 약 10% 이상으로 할까요?

○○○ 예, 10% 이상.

○○○ 안전성에 대한 조건부는 좀 뭔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안전에 관한 조건부 사항이면

○○○ 근데 그냥 13%라면 맞춤 선만 13% 키우면 어떻게 해요? 인체라고도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체가 중요한 거니까.

○○○ 예, 크기만. 사람만. 작품만 크기를 키울 것?

○○○ 네.

서 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 12번 하고, 14번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구조검토 받을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 기 ‘구조 검토서 반드시 제출’ 이렇게 할까요?

○○○ 네. 14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서 기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나요?

○○○ 그 13번은 가결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거는 사고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가결 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입장이라 이걸 반드시 조건부로 형테 변경 안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아마. 13번 다시

서 기 네, 13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13번, 다시 한 번 그림을 띄워주시죠.

서 기 네, 지금 보고 있는 술.

○○○ 지금 ○○○ 위원 말씀은 저희 아이들이 저기 기어 올라가서 저기 술  
 앞을 쥐고 흔들거나, 거기에 찢리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  
 죠?

○○○ 네, 그렇습니다.

○○○ 근데 저는 그거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 전 작품하고 비교하면 굉장  
 히 많이 노력해서 변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만약 이 작품을  
 누가 함부로 저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 말풍선 작  
 품도 엄청나게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가면 그렇게  
 그냥 저는 이 작품을 평범하게 봤는데 이걸 따지면 해당되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올라가서 떨어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아까 그 둥그런 작품부터 시작해 물방울 모  
 양으로 된 것도 마찬가지고, 말풍선 이거는 더 심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니까 적당히 사람이 그니까 인격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령게까지 막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도둑들이  
 못 올라갈 때도 없고, 빌딩도 못 올라갈 때가 없을 것 같은데.

○○○ 근데 침착을 할 때도... 아니, 아니, 저기 미술관 전시할 때 저거 기준  
 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만약에 꼬마들이 저렇게 올라가서 꼭 다칩니  
 다, 전시를 하면. 저도 이제 아까 작품에도 좀 그런 우려는 있었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작품을 자세히 지금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또  
 작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강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부  
 분은. 예, 심의사항이 그냥 보고이니까.

○○○ 그럼 좌대 놓으면 또 작품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좌대를 놓고

보면.

○○○ 그 안전사항은 다른 시에 가도 조건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나.

○○○ 아예 작품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솔잎의 패턴이나 위치를 조금씩 반영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자는 거라서요.

○○○ 그런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론하는 건 없었겠구나.

○○○ 13번 문제를 어떻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서 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 솔잎의 각도를...

○○○ 저 도면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을

○○○ 그럼 엄청 달라질 것 같은데.

○○○ 도면 좀 보고 있거든요.

서 기 네.

○○○ 지금 경사가 완만해서 걸어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그걸 약간 급경사로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올라가기가 좀 불편해서 안 올라가죠, 미끄러져, 미끄러워서. 이게 슬로프가 완만하니까 걸어 올라가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 지금 저기 솔 가지가 지금 하단에 부분이 낮은 부분이 120에서 140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사람이 지나가도 머리가 닿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는 진짜 이 점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통과가 안 돼야 되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통과가 됐으니까 안전성을 확보 안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솔 리프를 어떻게 하겠다, 용접을 어떻게 하겠다,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앞 표현부, 작품 면에 알골 용접 고정 이렇게 하면 나와 있지, 사실 이걸 레이저 커팅을 하고 연마를

한다고 해도 머리 갖다 박으면 그냥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떨어뜨리자라는 게 아니라 가결이 되었으니까

○○○ 그러면 그 술잎에 그 부피를...

○○○ 그런 걸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시 쪽에서도 그거를 이제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럼.

○○○ 안전측면에서 사실 뭐 사고라는 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항상 나는 것들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저희 어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가결이 이미 돼버린 작품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자는 게 어렵다면 사실 저도 이제 ○○○ 위원님하고 똑같이 이거는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통과가, 형태라던가 이런 건 좋은데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성이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옆에 주변에다가 펜스 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과해서 어린 아이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 방법, 아래쪽에다가 계단 좀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펼쳐서 안쪽, 저기에 앉아 있는 저런 형태는 아니고 저 작품 쪽으로 사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이제 지금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마감을 안전을 위해서 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게 날카롭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가서 뛰어 버리다가 찢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작가도 그걸 고려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확인을 조건부로 확인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꼭 그러는 수밖에 없죠.

○○○ 끝을 좀 저기 동그랗게 해서 뾰족하지 않게 그래서 찢리거나 긁히지 않게끔 손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 저는 개인적으로 저러한 작품들 좋아하는데
- 네, 형태는 참 좋아요.
- 지금 이 그림 자체가요, 굉장히 작품을 크게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저 작품 높이 실제로 5m인데 지금 저 그림으로 보면 작품 거의 한 7m 가까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위에 술방울이 있는데 사람 안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걸어가다가도 긁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0밖에 안 됩니다. 제일 통과하는 낮은 부분이 120에서 1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거는 무조건 조건부로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 91페이지를 보면 1번에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 레이저 가공 보면 진짜 거의 그냥 쇠판을 딱 레이저 가공으로 해서 거의 칼날처럼 되는 거거든요, 저게.
- 그리고 위에서 측면부, 위에서 봤을 때도 지금도 그냥 바닥이 튀어 나와 있어요. 튀어 나와 있어서 지나가다가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 그러면 조건사항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 술잎의 형태의 변화... 그러니까 술잎...
- 술잎 형태의 변화?
- 연마? 연마?
- 연마 가지고 안 되고요. 저거는 아무리 레이저 커팅해도 똑바로 서도 걸려요.
- 굽어야 돼요.
- 저걸, 저걸...
- 굽고, 부드럽게.

○○○ 연마 하고.

○○○ 펜스 좀 치면.

○○○ 굵고, 부드럽게.

위원장 그러면 솔잎 형태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다시 우리가 과연 안전할지 그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조건부 심의에서. 디자인을 변경하여, 예. 안정  
 성, 예. 재제출, 네.

서 기 다시 제출?

위원장 네.

○○○ 구조 검토서를 작지만 구조 검토서를 봐야...

○○○ 아니, 구조하고는... 저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저게 또 달라요.

○○○ 네, 구조와는 관계없고.

○○○ 재료가 아무리 두꺼워도요, 레이저 커팅하고 연마해도 저거 찢리거나,  
 걸리면 무조건 다칩니다, 저건. 100%예요.

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네.

서 기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위원장 네.

서 기 네.

위원장 그러면...

서 기 다른 의견은 또 없으신 건가요? 15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  
 니까?

위원장 네.

서 기 괜찮은가요?

위원장 예.

○○○ 저기 마지막 발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에 미술하시고, 예

술하시고, 작품 조각하시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저도 경기도에서도 미술작품 심의도 해보고 이번에 인천에서도 하게 됐는데 오늘 와서 이거 자료 주신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한 작가분이 5년 동안 작품을 통과시킨 게 14작품이다라고 한다면 ‘이 작가 분은 이 인천에만 최소 30작품 이상은 내셨겠구나.’ 그리고 경기도권이 있고, 서울이 있고, 그러면 ‘이 작가분이 도대체 5년 동안 작품을 몇 개를 만드셔서 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물 미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품 활동하시기에 어려움 많으신 작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물론 생업에 다 영향이 있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적어도 시청에서 어느 선은 좀 거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이걸로만 계속하시는 분들... 다른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더 힘들게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한테 몰아서 작품 계속 가는 거, 이거 사실 작품가 보면 뭐 1억, 2억, 3억 가면은 14개면 50억이에요. 이게 정말 합당한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작가들 또는 협회가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고 또 설왕설래 뭐 심지어는 뭐 법적 투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죠. 그러나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걸 뭐라고 제제할 방법이 없어요.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 위원님 의견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좀 공평하게 같이 먹고 살면 안 되겠냐.’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웃음)

○○○

제가 죄송합니다만 하나 의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네.

○○○

아까 13번 문제, 계속 안전 문제가 나와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별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조건을 좀 더 부여해주면 그쪽에서 또 어쨌든 조금 더 보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부결된 사람들의 내용은 적지 않나요?

사회자

네, 부결에 내용에 대해서도 신청자들한테 부결 사유를 저희들이 모두 다 심의서를 다 적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심의 했을 때 거기 이제 이렇게 밑에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위원장

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심의 안건 중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가결되었습니다. 조건부는 6번, 12번, 13번, 14번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2번, 8번, 12번은 권고로 가결되었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11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것으로서 2022년 제1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끝 -